

샬롯 메이슨의 교육철학

박경옥

샬롯 메이슨(Charlotte Mason): 영국의 교육학자(1842~1923)

무남독녀로 태어나 16세에 모친을 잃었다. 당시 유일한 교육대학인 Home and Colonial Society를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을 얻었다. Wording에 있는 Davidson School에서 1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The Ambleside Geography Books (세계 지리책)을 출판했다. Chichester에 있는 Bishop Otter Training College (교사양성대학)에서 5년간 가르치면서 그의 대표적인 교육학 책인 Home Education을 집필했다.



1891년 William Wordsworth, Beatrix Potter, John Ruskin 등이 거주하는 Ambleside로 이사하여 The House of Education을 설립하였다. 이 학교는 나중에 Charlotte Mason Colleg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University of Cumbria and Health Centre에 합병되었다. 샬롯 메이슨은 평생 교회주일 학교 교사로 봉사하였다. 영국 교육부 장관이 앰블사이드를 방문한 후 50개 공립학교에 교사를 파견하게 되어 영국 교육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었다. 1892년 전국학부모연맹(PNEU)을 창립하고, 이 단체는 나중에 학부모연합학교(편지로 공부하는 홈스쿨연합)가 되었다.

그의 저서 전집 한국어판은 권중중 장로와 유명자 권사의 헌금으로 DCTY에서 출판되고 있다.

들어가는 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결국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인간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시나요? 그것도 인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 (요한복음 3:16)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익숙한 나머지 종종 영광과 감동을 상실한 채 무미건조하게 지나가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멸망의 나라로부터 겨우 건짐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이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이 문서는 라브리공동체 웹사이트 자료실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저작권은 글쓴이에게 있으며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및 소량 배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the online library of L'Abri Fellowship Korea. All copyright belongs to the author. Printing, copying and small-scale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personal and group study.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라브리공동체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3025
☎ (+82) 033-673-0037 ✉ yangyang@labri.kr

www.labri.kr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10하반~11) 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스 로크마커(Hans Rookmaaker)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예수쟁이로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진정한 인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실 만큼, 인간의 회복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생명을 더 풍성히 얻을수록 인간은 더 진정한 인간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그 분의 아이들이라는 의미에서, 즐겁고 풍성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튼튼한 기초, 성경

살롯 메이슨은 여러 학자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평생 사랑하였던 성경 말씀 위에 교육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여러 이론들을 분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철학 첫 번째(Captain Idea)’는 ‘아이들은 타고난 인격체이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육학자들은 “아이들은 조종되어야 할 대상” (행동주의) 혹은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불완전한 인간” (피아제&브루너) 혹은 “스스로 욕망조절을 할 수 없는 동물 같은 존재” (프로이드)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롯 메이슨은,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인간이며,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라고 말합니다.

사실 두 번째, 세 번째로 계속 이어지는 그녀의 교육철학은, ‘아이들은 타고난 인격체’라는 원칙을 전개해 놓은 것입니다. 살롯 메이슨이 만든 모토를 보면 그녀의 ‘아이들은 타고난 인격체’에 대한 탁월한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나는 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것이다(I am, I ought, I can, I will).” 현대어로 바꾸면 아래와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I am a child of God),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I ought to do His will),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I can do what He tells me),

그리고 그 분의 은혜로 나는 할 것이다(And by His grace, I will).

- Jack Beckman, When Children Love to Learn, p.68

통일성 있는 교육철학

첫째, 살롯 메이슨은 아이들이 인격을 가진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비 유대-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아이들은 인간이 되어가는(become) 불완전한 존재로, 혹은 사회에 유용하도록 만들어져가는(become) 기계부품으로 생각되어져 왔습

니다.

하나님의 형상자는 쉽게 말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 좀 더 잘 알게 됩니다. 생각하고, 울고, 화내고, 분별력 있는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발한 비유와 토론을 하신 예수님을 보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과 바꿀만큼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우리 삶 전체가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자인 동시에, 죄인(glorious ruin)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샬롯 메이슨의 두 번째 철학, ‘아이들은 선과 악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가 의미하는 실재(reality)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론들이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가 내놓은 ‘구세주 예수’ 외에는 적합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샬롯 메이슨은 이것을 교육에 적용하였습니다. 우리 존재와 삶 전체를 아우르는 ‘예수님 닮아가기’를 교육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샬롯 메이슨이 강조하는 살아있는 책(living books)으로 교육하기와 배운 내용을 자기 말로 말하기(narration)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닮아 완전한 인격체임을 잘 드러내 줍니다. 샬롯 메이슨은, 아이들의 정신을 말라빠진 톱밥 같은 사실 혹은 정보만이 아니라, 밀반침하는 사상들을 아울러 배워 지식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며, 배운 내용을 자기 말로 말함으로써 지식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능력이 아이들에게 있음을 말해줍니다. 샬롯 메이슨을 따라하실 때에, 이 위대한 작업은 없이 아이들을 무조건 놀게 하고 숙제 안 내주는 것만 따라하시면 핵심을 놓치고 아이들을 망치게 됩니다.

둘째, 샬롯 메이슨은 권위와 순종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선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전제하여 원칙을 세웠습니다. 권위와 순종의 관계는 ‘자연스럽고 필요하며 기본이 되는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고’라는 말은,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데에는 범위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필요하며’는 인간의 죄성과 훈련의 필요성으로 인해 권위와 순종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본이 되는’이라는 말은, 땅 위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으며 그 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기본이 된다고 합니다. 샬롯 메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위는 부모가 그 자녀에게 주는 사랑의 일면이다. 부모는 사랑은 지속적인 자기부정이며 자기반성이고, 자기희생을 의미한다는 것과 권위가 사랑임을 안다. 자녀는 권위가 조용한 휴식이며 마음의 즐거움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권위를 사랑으로 인정한다.”

- 『학교교육』, p.45

권위를 조정하는 한 예로, 샬롯 메이슨은 ‘교사의 비활동성(masterly inactivity)’를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 양육을 완전하게 그 부모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시며, 모든 자녀의 훈

련에서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분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수동성과 겸손 그리고 현명함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모두 옳은 방식으로 자신의 성품을 발전시킬 여유를 자녀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 각자의 성품에 따라 하기 쉬운 그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 『학교교육』, p.55

‘하나님의 형상자이면서도 죄인’인 부모와 아이가 하나님 아래에서 어떻게 권위를 행사하고 순종하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른들이 임의로 정한 권위로 아이들을 누르는 교육이나, 아이들의 순종은 커녕 아이들에게 끌려다니는 교육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바로 사용해야 하는 어른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아이,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살랏 메이슨은 ‘주위 환경,’ ‘습관 훈련,’ ‘살아있는 사상들과의 접촉’이라는 세 가지의 교육적 도구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런 도구 사용의 목표가 무엇일지를 열세번째 교육철학에 밝힙니다. 즉 “교육은 관계의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과 부모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자연과 우주, 살아있는 책들과 사상들에 자연스런 친밀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위의 세 교육도구들은 적절한 배움의 환경과, 습관 훈련, 그리고 정신이 즐겁게 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커리큘럼을 제공함으로써, 아이와 아이의 친밀감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합니다.

“우리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아이들을 자극하고 인도하여서, 아이들에게 속한 이 세상의 사물들과 사상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어야 그들이 세상을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에 관한 지식을 골라서 짜맞추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이와 세상과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치명적입니다.”

- 학부모논평, 1902, p.485-487

‘습관 훈련’이라는 교육도구 역시 관계의 측면에서 다릅니다. 살랏 메이슨은 습관 훈련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는 자신과 또한 하나님과,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의 내적 관계가 자라나는 면에서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격과 행동 모두에 그 결과가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훈련은 신중하고 책임있게 이루어져

성경적 기독교의 입장	율법주의나 행동주의의 입장
한 인간을 양육한다	겉에 드러나는 과제
관계	과제, 업무
책임	성취
순종	조종
효과	능력
상호의존	독립적
신뢰	불안감, 비교
평화	재촉

〈습관 훈련을 보는 생각의 차이〉

야 하며, 율법주의나 행동주의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넷째, 샬롯 메이슨은 주님의 주권을 교육과 일상의 영역에 잘 펼쳐냈습니다. 그의 교육철학 18번, “우리는 아이들의 지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을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또 하나의 훌륭한 원칙입니다. 이것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11:36)라는 말씀을 교육에 제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공부하는 지성의 영역 역시, 하나님의 영역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아이들의 작은 관심사항과 습관형성, 의무, 기쁨 속에 하나님이면서도 도와주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반교육은 이원론의 영향으로 공부의 영역을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요, 공부는 공부라고 생각하고, 공부의 내용이 어떻든 성경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함으로써, 가슴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머리는 당대의 유행하는 학문이론을 따르는 것입니다. 100년 전의 샬롯 메이슨은 이원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한 영성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경으로 통합된 지식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샬롯 메이슨이 어떻게 성경 위에 교육철학을 세웠는가를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교육철학은 성경(진리) 위에 서 있기에, 시대와 문화를 넘어 적용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샬롯 메이슨은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되돌려주는 일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최대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로 진리 되게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샬롯 메이슨을 사랑하고 그녀의 교육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 반가운 일인데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샬롯 메이슨의 교육이론은 통일성과 일관성, 그리고 현실과의 상관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을 닮은 인간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려는 목표가 뚜렷합니다. 우리는 다른 교육 이론들이 내부적으로 서로 상충되거나 혹은 현실에 대한 부적절한 시각과 설명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샬롯 메이슨은 이 점에서 매우 훌륭하게도 통일성, 일관성, 그리고 현실과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샬롯 메이슨의 철학과 방법론을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 않은 다른 철학들과 무분별하게 섞지 맙시다. 샬롯 메이슨에게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인간이 완전하게 성경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위에 서 있는 교육철학을 비성경적 철학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성경적 철학 속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섞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샬롯 메이슨의 사상을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가 샬롯 메이슨의 교육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겠습니까? 모두 배우는 중입니다. 배우면서 다 실수를 하는 법이지요. 그러나 자칫 핵심은 놓치고 주변의 것들만 건지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신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샬롯 메이슨을 한국에 소개한 사람으로서,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샬롯 메이슨의 교육 철학으로 인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운다거나, 눈동자가 반짝인다거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 판단을 한다는 좋은 소식들입니다.

오늘날 남을 누르고 올라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을 행하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인간대접 받지 못하고 기계 취급 당하는 이 땅에서, 진정한 인간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자 힘쓰는 분들에게, 혹은 어려워 보이고 감히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샬롯 메이슨에게 주셨던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록 1: 샬롯 메이슨의 교육철학

1. 아이들은 타고난 인격체이다.
2. 아이들은 선하거나 악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3. 교육에 있어서 한 편에는 권위가, 다른 한 편에는 이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하며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4. 그러나 이 원칙은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아이들의 두려움이나 사랑을 빌미로, 어떤 제안이나 영향력의 행사로, 혹은 자연스러운 욕구에 맞지 않는 놀이로 인해 아이들의 인격이 침해당해서는 안된다.
5. 따라서 우리는 ‘주위 환경’, ‘습관 훈련’, ‘살아 있는 사상들과의 접촉’의 세 가지 교육적 도구로 범위를 제한한다.
6. “교육은 환경이다(Education is an Atmosphere)”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맞도록 인위적으로 고친, 소위 ‘아이들 환경’이라는 것에 아이를 격리시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사물들과의 관계에서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가정환경이 지니는 교육적 가치를 중요시해야 하며, 아이들이 적합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세계를 소위 ‘아이의 수준’이라고 낮추어 버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된다.
7. “교육은 훈련이다(Education is a Discipline)”라는 것은 정신적인 습관이든, 육체적인 습관이든, 단호하고 신중하게 아이의 습관을 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고의 습관적인 경향, 즉, 습관에 따라서 두뇌 구조가 결정된다고 생리학자들은 말한다.
8. “교육은 생명이다(Education is a Life)”라는 말 속에는 육체를 위한 양식 뿐 아니라 지적, 도덕적 양식도 포함된다. 정신은 온갖 사상을 먹고 자란다. 따라서 아이에게는 광범위한 교과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9. 그러나 정신은 헤르바르트(Herbart)의 관심 이론처럼 머리 속으로 들어오는 사상들을 ‘유화 類化집단’대로 하나씩 쌓아놓는 창고가 아니다.
10. 반대로 아이의 정신은 사상들을 담는 주머니가 아닌, 모든 지식을 갈망하는 영적 유기체이다. 정신은 이미 지식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으며, 육체가 음식을 소화흡수하듯 지식을 소화흡수할 것이다.
11. 이 차이점은 단지 말장난에 지나는 것이 아니다. 헤르바르트의 이론은 아이들의 눈길을 끄는 지식의 조각들을 적합한 순서대로 제시하는 것이 교육이라 하며, 그 강조점을 교사에게 둔다. 이런 원리로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이 하나 지식은 적게 얻는 위험에 빠지며, 교사는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보다는 아이가 어떤 방법으로 배우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잘못된 원리를 가지게 된다.
12. 우리는 보통의 아이는 그에 적합한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충분하고 광범위한 교과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식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즉 어떤 사실을 배울 때, 그것을 밀받침하는 사상들을 아울러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개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원리가 나온다.

13. 교육은 관계의 학문(Education is the Science of Relations)이다. 아이는 많은 사물과 사상과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가 신체운동, 자연, 공작활동, 과학과 예술을 익히고, 살아 있는 책들을 많이 읽도록 훈련해야 한다. 우리의 할 일은, 모든 것을 철저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천성적으로 타고난, '세상의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친밀감'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14. 도덕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 두 가지는 의지의 길과 이성의 길이다.
15. 의지의 길: 아이들은 다음의 것을 배워야 한다.
 - a.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할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 b.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될 것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돌리는 일(전환) 이다.
 - c. 생각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실제로 하는 것이다.
 - d. 이렇게 잠시 생각을 돌린 후, 의지력은 새로운 활력을 얻어 제 역할을 바르게 하게 된다. 의지의 보조수단으로서 암시를 사용하는 것은 심지어 자기 암시를 사용하는 것조차도, 성품을 무능력하고 틀에 박힌 것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다. 발달을 위해서는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인간 본성은 성공의 훈련 뿐 아니라, 실패의 훈련도 필요로 하는 것 같다.
16. 이성의 길: 우리는 또한 아이들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지식에 의지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성의 역할은 a. 수학적 진리와 b. 의지가 받아들인 관념을 논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에, 이성은 아마도 믿을 만한 안내자가 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성의 길 이 언제나 안전하지는 않다. 내 의지가 받아들인 관념이 옳든지 그르든지,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원하면 이성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대며 확증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17. 따라서 아이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이해할 만큼 성숙하게 되면 인격체인 그들에게 주어진 첫번째 책임은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관념들을 검토하여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일임을 배우는 것이다. 이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원리와 광범위한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위 15, 16, 17번의 세 가지 원칙들은 필요 이하의 수준에서 살도록 조장하는 영성한 사고와 부주의한 행동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준다.
18. 우리는 아이들의 지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을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일상 생활에서의 관심거리와 의무, 삶을 즐기는 것 등 모든 면에서 도와주고 계심을 가르쳐야 한다.

부록 2: 샬롯 메이슨의 교육선언

교육은 즐길 수 있고 개성을 강화하며 삶을 살 능력을 주는 것이다.

모든 어린이는 다양한 지식을 접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보통 어린이는 그런 지식을 누리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런 지식을 향한 욕구 혹은 열망은 만약 그 지식이 적절하게 주어진다 면, 모든 학교 학습을 위한 충분한 자극이 된다.

지식을 향한 그런 열망을 파괴하는 네 가지가 있다.

- a. 너무 많은 수업: 이는 희석된 형태로 지식을 제공하며, 어린이가 그 지식을 다룰 자유를 남겨주지 않는다.
- b. 강의: 강의를 위해 교사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하고 나열하며 설명한다. 이런 것 들은 종종 지식을 너무 축소하거나 요약하며, 완전히 준비된 형태로 제공한다.
- c. 교과서: 교과서는 큰 인물의 큰 책을 압축하고 재압축한 것들이다.
- d. 배움을 위한 동기유발로 경쟁과 야망을 부추김: 이는 지식을 향한 적절한 열망과 지식에 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의 자리를 대신한다.

어린이들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사물과 책으로 가장 적절히 교육될 수 있다. 사물이란,

- a. 등산, 수영, 산책 등과 같이 육체도전적인 활동을 하면서 배우는 자연의 구조
- b. 나무, 가죽, 진흙 등과 같은 작업용 재료
- c. 새, 식물, 시내, 돌 등 실제 자연 서식 환경
- d. 예술작품
- e. 과학기구 등

사물을 이용한 교육의 가치는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지만, 책에서 취할 수 있는 지적 교육은 여전히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만6세 이상의 모든 학생은 상당히 폭넓은 커리큘럼에서 그 자신의 살아있는 책으로(living books) 모든 주제에 대해 '기쁨'을 느끼며 공부하여야 한다. 만 6 세에서 8세까지의 어린이들에게는 소리 내어 책을 많이 읽어주어야 한다.

이 접근법은 지난 12년간 많은 가정과 학교에서 시도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책을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읽기, 맞춤법, 작문 등의 어려움은 사라지며, 공부하는 '즐길 수 있고 개성을 강화하며 삶을 살 능력을 주는 것' 이란 점이 증명된다. 우리는 이런 원칙들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화, 경제성, 그리고 훈련의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